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현세와 내세

시편 73: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현세와 내세의 삶을 요약하여 말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도 그러하다.

현세(현재의 삶)

성도들의 현세 곧 현재의 삶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 요약된다. 현세는 나그네의 삶과 같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말했다(15절).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즉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그 교훈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 성도가 삶의 규칙으로 받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12-13절).

시편 73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앞뒤 절들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였다(시 73:23, 25-28).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았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세상의 헛됨을 증거한 후 전도서 12장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했다(13절).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다. 성도들도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여 비슷한 염려를 가지고 산다. 그것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경제의 염려와 건강의 염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그런 염려를 버려야 하고 버릴 수 있다.

성도들은 경제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 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편 37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증거했다(25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31-33절). 우리는 경제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은 또한 건강의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했다(4절). 그는 세상이 질병과 위협과 죽음의 골짜기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을 믿었던 것이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26절).

잠언 3장에는 건강에 관한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 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리프우스 **רִפְאוּת**)[건강(KJV, NIV), 치료(BDB, NASB)]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7-8절).

내세(미래의 삶)

오늘 본문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한다. 성도의 현재의 삶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요약된다면 **성도의 내세 곧 미래의 삶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요약된다.** 누가 성도들을 어디로 영접하는 것인가? 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것이다.

인생은 나그네이며 세상은 그들의 본향이 아니다. 인생은 왔다가 간다. 70년, 80년 살다가 하나씩 돌씩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은 채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보인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한다(5절).

선지자 엘리야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그의 수종자 엘리사가 걸어가며 말하는데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의 간격을 떨어지게 했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증거한다(11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 1장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증거한다(9절).

주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

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14:1-3).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곧 복된 천국을 주실 것을 말씀하였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1-4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4:16-5:1).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불타버리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3:10-13).

말씀을 맺는다. 오늘 본문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현재와 내세를 요약한다.

첫째로, 우리는 현재에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의 계명들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특히 그의 약속을 믿고 경제도 염려치 말고 건강도 염려치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 또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해야 한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영광의 나라이다.

주일오후설교 **베냐민을 남겨두려 함**

[창 44:1-6]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헝카톤 ἡνκατων) 그 가장 어린 자(BDB, KJV, NASB, NIV)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아침이 밝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접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7-13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난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는,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뒤지니)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집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은 너무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아버지 야곱이 염려했던 그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다.

[14-17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하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

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지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창 29:32-35) 본문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또 “유다가 가로되”라고 말한 것은 성격이 활달하였거나 지도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 보상하려는 마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 그 형제들은 만일 베냐민을 두고 가는 상황이라면 자신들이 모두 그의 종이 되겠다는 단합된 결심을 보였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남겨두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형들에게 왜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이런 일을 했는지, 그의 속뜻이 무엇인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는 마음이 아직 없었는지, 형들의 회개를 위해 좀더 시간을 주려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 해석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

[18-24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머니의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유다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한 말씀을 고하기를 청했다. 20절에 그가 말째 아우의 형이 죽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 형제들은 아직도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그들에게 참 회개가 없었음을 나타낼 것이다. 자기 잘못을 사실대로 고백함이 없이는 참된 회개가 없다. 그들은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25-29절]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 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28절의 말씀대로 야곱은 지금껏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창 37:31-33),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의 잘못과 거짓말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였다.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였다.

[30-34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기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전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었다(창 37:26-27). 그러나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이었다(출 21:16). 그런 일들이 있던 후에, 유다는 그의 아내가 죽은 일이라든지, 그의 장자와 차자가 죽은 일, 또 그 자신이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그에게 들어가 그로 임신케 한 부끄럽고 죄악된 일 등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징벌을 상당히 받았었다.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고(창 42:21) 이제 다 함께 베냐민을 위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인격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담보하며 그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은 그의 심령과 인격의 큰 변화를 증거한다. 지금 유다는 이전의 유다가 아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아버지께 사실 그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들추어내실 것이다. 잠언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참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

둘째로, 유다와 형들은 다 요셉에게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였고 특히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간청했다. 유다와 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징계를 통해 착한 방향으로 많이 변한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낙심치도 말고 달게 받고 우리의 부족을 고쳐 온전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특히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기를 청하였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악의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보상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유다의 회개의 열매이었다고 보인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다(요 15:13). 그는 친히 참 사랑을 보이셨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본받아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수요일 설교 | 이새에게서 난 한 싹

[사 11:1-9]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께서는 본문에 예언된 대로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가진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이새의 자손으로 오셨고 여호와와의 영께서 그 위에 계셨다. 마태복음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골로새서 2:9, “그 안에 신성(神性)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받고 확신하고 따라야 한다.

둘째로, 메시아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셨다. 요한복음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했다(행 17:30-31). 재림하실 주 예수께서는 장차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마다 모든 죄를 멀리하고 오직 정직하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

셋째로, 메시아께서는 평안의 세계를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의 시대는 신약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평안을 얻었고 이 평안의 복음은 세상에 널리 증거되고 있다. 비록 우리의 성화가 불완전하듯이 지상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과 천국은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평안의 세계일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의와 평안과 기쁨의 세계를 사모하며 소망해야 한다.